

##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황 정 은\* 1)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안되어야 할 것인가. 둘째,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B' 중학교 2·3학년 학생들 중 부모가 함께 참여 가능한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5명과 통제집단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부모참여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은 박인우(1995)의 상담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구안되었으며, 검사도구로는 Crites가 제작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번역한 것(1984)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dow 12.0에서 혼합변량분석 및 대응표본 t검증을 사용하여 통계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 회기별 부모설문을 통해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진로인식 변화에 관한 점수를 학생별로 누가 기록한 후 그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상담자의 관찰내용과 집단원의 경험보고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소감문을 분석하여 통계적 검증에 따른 연구 결과를 보완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처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진로성숙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용 분석 결과에서도 실험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부모참여 프로그램, 진로집단상담, 진로성숙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정은,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133-77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 2동 대림 아파트114-1401, Tel : 016-367-8861, E-mail: purpleje@daum.net

본 연구는 부모가 직접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여 이것이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진로성숙이란 자기이해,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하고 조정해 나아가는 것이다(김봉환 외, 2004). 진로성숙도는 이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도구로 진로발달이론에서 연유하며, 청소년의 직업흥미 발달을 연구했던 Carter와 Super(1942), 직업행동은 나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제안한 Strong(1943)의 연구에서 시작되어 1950년대 직업선택에 관한 발달이론가인 Super(1951)와 Crites(1961)에 의해 발달된 개념이다. 진로성숙도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는데,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한 바탕으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Hoyt, 1976)를 의미하기도 하고, 개인이 특정 직업을 발견·준비하여 종사하고, 은퇴하는 발달 과제들에 대처하는 태도와 인지상의 준비도(Super, 1984)로 말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Crites, 1973)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이란 아동들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직업에 대한 이해 능력을 함양하여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선택·계획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Crites가 제작한 CMI를 사용하여 측정되는 점수를 말한다.

중학생이 갖추어야 할 진로성숙의 정도는 Ginzberg(1972)와 Super(1980)가 제시한 진로발달 단계에 비추어 볼 때 맹목적인 욕구에 의존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환상기를 탈피하여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즉 자신의 성격특성, 흥미, 적성, 가치관, 학업성적, 직업에 대한 전망 등의 다양한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게 되는 시기로 이때에는 구체적인 진로선택이나 결정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일과 직업세계를 알고 이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며, 진로기회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발달적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연구들에서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Smith(1976)는 주 2시간씩 10주간 2학급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고도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것보다 훨씬 진로성숙에 있어서 의미 있는 증가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Johnson, Yates(1979)는 중학교 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주 1시간씩 5주간 계속되는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CMI로 효과를 측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태도와 지식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국내의 연구를 보면 이수웅(1995)은 자아발견, 직업탐색, 진로선택과 관련된 진로상담프로그램을 10회기에 걸쳐 집단적으로 적용한 결과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인 계획성, 결정성, 직업세계 이해능력, 직업선택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방자(2001)는 대구시 B여중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2회 6주 동안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한국 심리연구소(1999)에서 개발 제작한 진로성숙도 검사로 측정된 결과 진로성숙의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하위영역인 직업관, 독립성, 사회적 협조성, 직업정보의식, 직업정보 활용, 직업정보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호(2003)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14회기를 진행하고, Strong진로탐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로능력 및 준비도는 향상되었지만 가족 일치도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와 가족 사이의 진로갈등이 원인이며, 이러한 갈등이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희(2004)는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이 기존의 강의중심 진로프로그램을 경험한 비교집단보다 진로성숙 태도검사와 능력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진로성숙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이는 다른 연구(강경희, 2002; 강중화, 2005; 류숙경, 2006; 변해중, 2008; 이경미, 2003; 장순이, 2006; 조용선, 2006; 현금환, 2007)등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이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중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생들과 가장 오래 생활하였으며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훌륭한 지지자로서의 부모역할이 배제되어 있었다. 데이터뉴스(2006.12.06)에 따르면 청소년기 직업관 형성 및 진로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모와 가족이 1순위로 나타났고, 직업선택이론에서 Holland(1997)는 유형은 유형을 낳는다고 하여 부모의 성격유형에 따라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경험의 기회가 달라지고 부모와의 상호과정 속에서 직업에 대한 태도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녀의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에 부모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경험적인 연구의 결과에서도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중학생의 진로나 직업결정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조사대상 53.8%가 부모를 선택했으며(김병숙 외, 1997) 전국의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전체의 12.4%, 21.5%로 형제, 친구,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박정민, 유정이, 이영선, 2003) 이는 다른 연구들(권현하, 2004; 김경혜, 2002; 유재순, 2007; 정철영, 1999; 조찬성, 2000; 진혜영, 2006; Mitchell & Krumboltz, 1996)의 결과에서도 동일했다. 결국 학교에서 아무리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이 고려되

지 않는 진로교육은 많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발달 속에서 함께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관련프로그램이 가정과 연계가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최근 가정과 연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향숙(2004)은 중학교 1학년 10명을 대상으로 11회기 동안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매 회기별로 학생이 가정에 돌아가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부모에게 설명하고 설문지에 피드백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부모를 참여시켜 진로성숙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말했다. 허은숙(2004)은 진로교육 학부모자료 제공과 전화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모-자녀 동시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부모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진혜영, 정혜영(2006)은 초등학교 4학년 35명 학생을 대상으로 6주간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올바른 진로지도 방향과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자료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정연계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진로교육에서 도외시되었던 학부모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반면에 획일적인 진로교육 자료의 일방적 제시가 아쉬웠고 각 학생에게 맞는 개별화된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최은희(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 집단(자녀가 가정에 돌아가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부모에게 하고 '진로교육 도움자료'를 제시한 실험집단, 자녀만 참여하는 비교집단,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구성하고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통제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자녀만 참여한 비교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가정과

의 연계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부모-자녀 간 대화 패턴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활동시간 10-20분으로는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있었고, 학부모에게 진로교육 도움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학부모가 진로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영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네 연구모두 가정과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나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보다 간접적인 진로교육 정보제공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최장미(2008)는 초등학교 6학년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실제 부모를 참여시키고 강원도 교육연구원(1993)에서 개작한 '초·중학생용 진로성숙도검사'를 사용하여 진로성숙도의 6개 하위영역(계획성, 타협성, 결정성, 직업이해능력, 직업선택능력, 의사결정능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진로태도의 성향성과 진로능력의 자신이해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흥미와 놀이중심의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보니 부모는 놀이 활동의 보조자로서 역할이 제한되었고, 아동 역시 본인의 특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내면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도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이 가정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시도하였으나 적절한 부모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주요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었음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의 환상기를 탈피하여 본격적인 진로탐색단계로 나아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며 부모와 함께 다양한 일과 직업세계를 직접 탐색·경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전통적인 직업관에서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선택으로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자녀들의 진로발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지제공을 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잠정적으로 선택해보

는 연습을 통해 미래의 진로선택기회가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력하여 원하는 진로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체계적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변화경험의 의미를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안되어야 할 것인가? 둘째,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위의 과제 수행을 통하여, 본 연구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족하는 맞춤형 진로상담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B중학교의 희망하는 2·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부모가 함께 참여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신청을 통하여 학생 15명(남6, 여9), 학부모 15명(여15 : 가구당 1명)으로 구성하였고, 통제집단은 진로성숙도 검사를 신청한 2·3학년 학생 15명(남5, 여10)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 연구절차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구안된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에 2009년 3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주에 2회기씩 총 12회기(회기 당 60~90분)에 걸쳐 방과 후에 진행

하였다.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치도 가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모가 본 프로그램의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자녀의 진로인식 및 탐색 활동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부모진로교육을 3월 11일, 부모 15명의 참여 하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 진로성숙도 사전검사 및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직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 회기별 부모설문을 통해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진로인식에 관한 점수를 학생별로 누가 기록한 후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종결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학생들과 2달 뒤인 6월 12일에 추후 모임을 갖고 진로성숙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양적결과가 갖는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자의 관찰내용과 집단원의 경험보고서,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후 부모와 학생이 작성한 평가 소감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실험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중도탈락자는 없었다.

### 연구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이질 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로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실험집단	O <sub>1</sub>	X	O <sub>2</sub>	O <sub>3</sub>
통제집단	O <sub>4</sub>		O <sub>5</sub>	

그림 1. 실험설계 모형

O<sub>1</sub> , O<sub>4</sub> : 사전검사(진로성숙도 검사)

O<sub>2</sub> , O<sub>5</sub> : 사후검사(진로성숙도 검사)

X : 실험처치(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부모참여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

O<sub>3</sub> : 실험집단 추후검사

측정도구

### 진로성숙도 검사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는 Crites가 10년간 연구를 거쳐 제작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번역한 것(1984)으로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사용될 수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직업선택과 결정에 대한 피검자의 태도와 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적 반응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결정성(Decisiveness), 타협성(Compromise), 관여성(Involvement), 독립성(Independence), 성향성(Orientation)의 다섯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구는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고, 이 척도를 사용한 Crites(1978)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학년에서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1,648명에게 실시하고 1년이 지난 뒤 측정하여  $\alpha=.71$ 의 값을 얻었다. 또한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alpha=.85$ , 반분신뢰도  $=.85$ 로 검증된 바 있다. 총 47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혀 아니다 = 1점, 매우 그렇다 = 4점)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시한 사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alpha=.86$ , 반분신뢰도  $=.87$ 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결정성** : 자신의 진로문제에 관해 확신을 갖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높은 점수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며, 반면에 낮은 점수는 진로 선택에 있어 혼란을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결정성 문항의 예는 '사람들은 나에게 각기 다른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이며,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한 신뢰도는  $\alpha$ 와 반분신뢰도 모두 .77이었다.

**관여성** : 자신의 진로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관여하는가를 의미한다. 높은 점수는 직업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 하는 마음

자세로 자신의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얻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고, 반면에 낮은 점수는 직업에 대해 별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진로가 저절로 결정될 것이라는 안일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관여성 문항의 예는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이며, 본 연구를 통해 측정된 바 관여성의 신뢰도는  $\alpha = .62$ , 반분신뢰도  $= .63$ 이었다.

**독립성** : 자신의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 의존하는가를 의미한다. 높은 점수는 주체성이 높음을, 낮은 점수는 의존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독립성 문항의 예는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이며, 본 연구에서는  $\alpha = .75$ , 반분신뢰도  $= .74$ 로 검증되었다.

**성향성** : 진로선택 시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서의 선호도와 진로선택에 필요한 사전이해 및 준비의 정도를 의미한다. 높은 점수는 자신의 진로 선택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성향성 문항의 예는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며, 본 연구에서 검증한 신뢰도 계수는  $\alpha$ 와 반분신뢰도 모두  $.82$ 로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타협성** : 진로선택 시 자신의 욕구와 현실을 조화시켜 타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높은 점수는 두 가치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현실 감각을 가진 것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자신의 욕구와 현실적 조건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여 내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는 것을 나타낸다. 타협성 문항의 예는 '나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때가 많다'이며,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한 신뢰도는  $\alpha = .58$ , 반분신뢰도  $= .59$ 였다.

### 부모용 자녀진로 인식변화 측정 설문지

매 회기 프로그램 종료 후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진로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단, 1회기의 경우 사전부모교육으로 설문조사에서 제외함.) 설문내용은 김향숙(2004)이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진로성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선정하고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는 '부모가 보기에 자녀는 자신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부모가 보기에 자녀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등의 5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분석에는 이 5문항 점수의 평균이 사용되었고, 본 설문을 통해 검증된 신뢰도 계수는  $\alpha = .87$ 이었다. 이를 통해 나타난 15명 부모의 각 회기별 점수를 그래프로 누가 기록하여 부모가 보는 자녀의 진로인식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험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SPSS/Window 1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집단과 검사시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투입한 실험집단 내의 사전, 사후 검사시점의 변화가 통제집단의 변화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봄으로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사용하였다. 또한 진로성숙도 각각의 하위요인 내에서 실험-통제집단에 따른 검사시점의 변화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기 위해 혼합변량분석을 반복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매 회기별 부모용 설문지를 통해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진로성숙변화를 그래프로 그려 변화추세를 살펴봄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자녀들의 진로성숙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도 이 효과가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

(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에서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결과가 갖는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경험보고서와 상담자의 회기 관찰내용 및 집단원의 프로그램 소감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완하였다.

## 부모참여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 구안

### 프로그램 구안방향

본 연구에서 구안되는 부모참여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집단 상담의 형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중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이 시기 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상과 그 역할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부모영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아동의 진로성숙에 도움을 주는 부모참여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에게 자신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알아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긍정적인 자기 가치관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안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각 학생마다 발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진출할 진로 영역을 탐색하려는 시기로(Super, 1957) 자신을 인식하는 차원이 다양화됨으로써 폭넓은 자기이해가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로탐색이 이루어지기 시작(박효희, 2007)한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흥미와 능력을 발견하고 자아인식을 증진시키도록 자기이해 영역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구성한다.

이 때 성격유형 검사나 진로흥미검사 등을 활용하되 검사활동이 중점이 되기보다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험이 중심이 되도록 구성한다. 둘째, 이 시기의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관심은 형성되었으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직업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2001) 대학진학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탐색 없이 학업성적 위주로 직업을 선택하려한다(김재담, 2003). 따라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일과 직업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보는 과정에서 모든 직업이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알고 잠정적으로 자신의 특성에 알맞은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셋째, 청소년 시기는 부모의 직업관, 양육태도, 의사소통 유형, 대화와 지지의 정도 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김숙이, 2005; 백미화, 2008; 정미숙, 2008) 진로집단 상담에 부모를 참여시켜 자녀와 대화 및 접촉을 많이 하도록 하고 올바른 직업관과 양육태도로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프로그램 구안과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박인우(1995)의 체계적인 상담프로그램 개발모형을 바탕으로 조사, 분석, 설계, 구안, 적용의 과정을 거쳤다. 이 프로그램 개발모형은 교육과정 코스개발, 수업체제 개발 모형 등을 근거로 하여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그 절차와 활동 내용을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조사 및 분석단계 :** 이 단계에서는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영역과 활동을 결정하고자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실태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한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석민(2001)은 '3R 진로선택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준비, 직업세계의 여행, 의사결정, 미래여행의 4개

영역으로 제시하였고, 정철영 외(2006)의 ‘CDP-M 중학생을 위한 진로지도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의사결정, 교육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 계획 및 준비의 5개 영역을 제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1985)에서 분류한 7개 영역(자아인식, 직업세계의 이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일과 직업의 교육적 측면 이해, 인간관계기술, 의사결정능력)은 우리나라에 진로교육을 도입하려는 노력과 함께 마련된 연구결과로 다양한 차원의 각종 진로관련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널리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진로교육의 내용영역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관련 있는 영역 간의 통합이 필요함을 판단하고 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영역을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진로의식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

구조사는 서울시 소재 B중학교 2·3학년 학생 102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요구조사 설문지는 한국교육개발원(1999)의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부모용 읽기자료 개발연구’와 최장미(2008)의 ‘초등학생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학생의 진로의식 수준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선정하고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요구조사 결과 학생, 부모, 교사 모두 학생의 성격·특징 및 적성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일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요구가 드러났다.

표 1.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분석

내 용	학생 (n=102)	부모(n=60)	교사(n=34)
① 학생의 성격과 적성, 흥미 알아보기	56(55%)	51(85%)	18(55%)
②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알아보고 일의 보람과 즐거움 알아보기	21(20%)	5(8%)	12(38%)
③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기르기	19(19%)	1(2%)	1(1%)
④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6(6%)	3(5%)	3(6%)

표 2. 학생 진로의식 실태분석

내 용	매우 잘 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약간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①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까?	25(25%)	45(44.6%)	27(26.8%)	5(3.6%)
②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7(7.1%)	44(42.9%)	44(42.9%)	7(7.1%)
③ 자기가 잘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9(8.9%)	53(51.8%)	18(17.9%)	22(21.4%)
④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1.8%)	7(7.1%)	33(32.1%)	60(59%)
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6(16.1%)	13(12.5%)	9(8.9%)	64(62.5%)
⑥ 다양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5(3.6%)	8(7.4%)	16(16.1%)	73(72.9%)
⑦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9(19.1%)	11(10.9%)	39(38.2%)	33(31.8%)



학생들의 진로인식 실태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다양한 직업의 종류 및 정보탐색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상당수였다. 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을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학생이 72.9%로서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이를 하나의 큰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실태 및 요구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영역과 활동 내용을 선정하였는데 중학생들에게 부족한 요인인 동시에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이해능력, 일과 직업세계 이해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능력,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선택 능력 등을 추출하였고, 이를 진로성숙도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인 관여성, 독립성, 성향성, 타협성, 결정성 속에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자신의 진로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기의 성격, 흥미, 적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도록 하는 활동은 관여성 영역에서, 다양한 일과 직업의 종류, 좋은 직업의 의미,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의 조건들을 살펴보며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서의 이해 및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은 성향성 영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을 익히고 이를 적용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해 보는 연습은 독립성 영역에서, 자신의 욕구와 현실을 조화시켜 자신의 진로계획을 설계하는 활동은 타협성 영역에서, 자신의 진로문제에 관한 확신을 갖고 마음의 안정감 속에 실천의지를 다지는 활동은 결정성 영역에서 다루도록 구성하여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구안하고자 한다.

**설계단계 :** 선행연구와 요구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진로성숙도 향상 부모참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한 기초를 설계하는 단계로 사전·사후·추후검사 각 1회기와 집단상담 12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설계하였다.

**구안단계 :** 회기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활동지를 구성하고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았다. 연구자에 의해 재구성된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은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1인과 2·3학년 담임교사 7인에게 1차 자문과정을 거쳐 적용가능성을 검증 받았고, 2차로 상담심리 지도교수 1인과 상담심리 전공 박사 3인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3인 선생님들의 자문과정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개발하였다. 자문결과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으나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적용단계 :**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통해 수정·보완된 프로그램을 제 3의 집단에 적용하였다. 예비 적용 대상은 2학년 학생 6명(여4, 남2)이었고, 2009년 2월 9일~2월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총 5회기를 실시하였다. 예비 적용된 프로그램은 진행방법과 시간배정,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도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3, 4, 7, 10, 11회기였다. 적용결과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구안된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활동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3. 잠정적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결과 및 수정사항

구분	자문결과	수정사항
이론적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와 의사소통 기법 및 중학생의 진로발달 특성에 관한 면담이나 사전모임이 필요함.</li> <li>· 프로그램 목표 설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li> <li>· 부모와 학생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시작 전 부모교육활동을 포함하였음.</li> <li>· 필요 설명들을 보완함.</li> <li>· 부모가 협조자·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첫 회기 부모교육의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실제 활동 속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함.</li> </ul>
실제적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라포 형성 시간 필요함.</li> <li>· 집단 상담이므로 첫 회기에 서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함.</li> <li>· 3회기의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활동은 자칫 학생들에게 기록의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활동내용의 수정이 필요함.</li> <li>· 7회기의 활동내용으로 직업편견을 쉽게 버릴 수 있을지 의문임.</li> <li>· 중도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및 가정에 미리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회기 시작 전 서로 마음을 터놓는 활동을 추가함.</li> <li>· 놀이를 통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함.</li> <li>·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축약함.</li> <li>· 직업에 관한 편견을 극복한 사람들의 관련 자료를 읽고 부모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추가함.</li> <li>· 학생들이 각종 행사로 인하여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였고 부모들에게도 서약서를 받음.</li> </ul>

황정은

표 4.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내용

회기	주제	활동 목표	활동 내용	부모참여
1	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생의 진로발달 특성</li> <li>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적용 (나-메시지 사용법, 반영적 경청 방법)</li> </ul>	
2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의 의미와 목적 이해</li> <li>친밀감 형성하기 (부모님과 함께하는 미로 찾기 게임, 나의 가족 샌드위치 만들기, 짝 피구)</li> </ul>	자녀와 함께 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보는 나</li> <li>친구가 보는 나</li> <li>부모님이 보는 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장점을 찾아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li> <li>부모님과 함께 나의 장점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계획 세워 실천하기 (고용계약서 쓰기)</li> <li>[과제활동] : 성격유형 검사(부모, 학생)해오기</li> </ul>	자녀와 함께 활동
4	자아 이해 (적성과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성격 이해</li> <li>다양성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격의 '좋고 나쁨'이 아닌 '다양성' 이해</li> <li>자기 성격의 특징 파악하기</li> <li>나의 성격과 부모님의 성격특징을 다섯 글자로 표현, 비교하며 이해의 폭 줄이기</li> <li>성격유형의 특성과 관련 직업 알아보기</li> </ul>	자녀와 함께 활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적성과 흥미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흥미검사 및 직업적성검사(부모, 학생)</li> <li>[미션수행] 적성, 흥미 관련 부모님 인터뷰하기.</li> <li>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알맞은 직업유형 알아보기</li> </ul>	자녀와 함께 활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직업의 종류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의 세계'영상 자료 시청</li> <li>직업카드를 보며 부모님과 스피드게임하기</li> <li>다양한 직업 세계를 알고 직업군별로 분류해보기</li> </ul>	도우미로 활동
7	일과 직업세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과 교과와의 관계</li> <li>다양한 직업 탐색방법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교과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 알기 (부모와 함께 문장완성하기 : 내가 좋아하는 교과와 선호하는 직업 연관성 찾기)</li> <li>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탐색 방법 알아보기</li> </ul>	자녀와 함께 활동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좋은 직업의 의미 (직업편견 깨기)</li> <li>직업선택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와 함께 직업카드 분류(좋아하는 직업/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직업/싫어하는 직업) 및 직업편견을 극복한 인물사례를 읽으며 평소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편견을 부모님과 이야기해보기</li> <li>좋은 직업 의미와 직업 선정의 바람직한 기준 이해하기</li> <li>나에게 맞는 직업선정의 중요성 이해 및 직업선택기준 정리하기</li> </ul>	도우미로 활동
9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 현장 체험학습</li> <li>직업 탐색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체험을 계획하고 직업 현장방문 · 체험하기</li> <li>[과제활동] : 필요한 내용 관찰하여 결과 정리한 후 소감문 작성</li> </ul>	자녀와 함께 활동
10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의사결정 방법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이해</li> <li>생활 속 사례를 보고 부모와 함께 합리적 의사결정 연습</li> <li>[과제활동] : 부모와 함께 생활 속 장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반복 연습 후 활동지 작성해오기</li> </ul>	자녀와 함께 활동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진로목표 및 실천 계획 세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와 함께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목록 작성하기</li> <li>수렴적 사고기법을 적용한 직업선택 및 상세정보 탐색</li> <li>진로계획 설계하기(진로목표와 행동지침 작성)</li> </ul>	도우미로 활동
12	마무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천의지 다지기(부모님과 함께 황금 손 만들기)</li> <li>나의 사명서 작성 및 부모 앞에서 발표하기</li> <li>프로그램을 통한 소감문 작성</li> </ul>	자녀와 함께 활동

## 결 과

본 장에서는 연구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해석하였으며, 집단원이 작성한 회기별 경험보고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설문지 및 상담자의 관찰 기록을 통한 내용 분석을 함께 제시하였다.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진로성숙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t-검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 따라서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로그램 참여 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 패턴은 전반적으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검사에서 진로성숙도가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검사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집단과 검사시점 간의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하였다( $F=21.04, p>.001$ ). 이 결과는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변화가 통제집단의 변화와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가 증가한 것은 실험집단에 투입된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실험-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사전 동질성 검증

구분	집단				t	p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M	SD	M	SD		
진로성숙도	33.80	4.70	34.80	3.32	1.48	0.14
결정성	6.80	1.62	6.70	1.70	1.06	0.29
타협성	7.70	1.49	7.80	1.62	1.74	0.09
관여성	7.10	1.97	7.80	1.48	1.65	0.10
독립성	5.40	1.43	5.70	1.49	1.47	0.15
성향성	6.80	1.48	6.80	1.40	-0.13	0.90

표 6. 진로성숙도 사전, 사후검사의 전체 기술통계 결과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SD	M	SD	M	SD	M	SD
진로성숙도	33.80	4.70	42.20	2.57	34.80	3.32	34.60	4.33

황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하위영역별 평균값들의 변화 패턴 역시 전반적으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표 8에서 확인되듯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하위영역별 사전검사 평균은 비슷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험-통제집단에 따른 검사시점의 변화가 진로성숙도 각각의 다섯 개 하위요인 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혼합변량분석을 반복해 사용하였다. 단 결과를 해석할 때 Familywise - Type I 오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Bonferroni 유의수준 교정방법을 사용하여 유의수준을  $p < .012$ 로 설정하였다. 실시 결과 진로성숙도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 중 결정성( $F=9.44, p < .001$ ), 타협성( $F=9.82, p < .01$ ), 관여성( $F=9.13, p < .01$ ), 독립성( $F=10.95, p < .01$ )면에서 집단과 검사시점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변화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향성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F=4.86, p > .05$ )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의 대부분 하위요인들이 프로그램 참가 후 실험집단에서 유의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려주며,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가 향상된 것은 실험집단에 투입된 진로성숙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실험-통제집단에 따른 진로성숙도 변화분석

	변량원	SS	df	MS	F	p
진로성숙도	집단 간					
	집단	81.23	1	81.23	3.45	0.080
	오차	424.05	18	23.56		
	집단 내					
	검사시점	105.63	1	105.63	18.67	.000
	집단×검사시점	119.03	1	119.03	21.04	.000
	오차	101.85	18	5.66		
	총합	831.79	39	335.11		

표 8.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사전 · 사후검사의 전체 기술통계 결과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SD	M	SD	M	SD	M	SD
결정성	6.80	1.62	8.40	1.27	6.70	1.70	6.70	1.49
타협성	7.70	1.49	9.30	0.82	7.80	1.62	6.90	2.18
관여성	7.10	1.97	8.90	0.99	7.80	1.48	7.90	1.20
독립성	5.40	1.43	6.90	0.88	5.70	1.49	5.70	1.41
성향성	6.80	1.48	8.70	0.82	6.80	1.40	7.40	0.97

표 9. 실험 - 통제집단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변화 분석

하위요인	변량원	SS	df	MS	F	p
결정성	집단간					
	집단	8.10	1	8.10	2.03	0.17
	오차	72.00	18	4.00		
	집단내					
	검사시점	6.40	1	6.40	9.44	0.007
	집단×검사시점	6.40	1	6.40	9.44	0.007
	오차	12.20	18	0.68		
	총합	105.1	39	25.58		
타협성	집단간					
	집단	13.23	1	13.23	3.72	0.07
	오차	64.05	18	3.56		
	집단내					
	검사시점	1.23	1	1.23	0.77	0.39
	집단×검사시점	15.63	1	15.63	9.82	0.006
	오차	28.65	18	1.59		
	총합	122.79	39	35.24		
관여성	집단간					
	집단	0.23	1	0.23	0.07	0.801
	오차	62.05	18	3.45		
	집단내					
	검사시점	9.03	1	9.03	11.40	0.003
	집단×검사시점	7.23	1	7.23	9.13	0.007
	오차	14.25	18	0.79		
	총합	92.79	39	20.73		
독립성	집단간					
	집단	2.03	1	2.03	0.67	0.42
	오차	54.25	18	3.01		
	집단내					
	검사시점	5.63	1	5.63	10.95	0.004
	집단×검사시점	5.63	1	5.63	10.95	0.004
	오차	9.25	18	0.51		
	총합	76.79	39	16.81		
성향성	집단간					
	집단	4.23	1	4.23	2.11	0.16
	오차	36.05	18	2.00		
	집단내					
	검사시점	15.63	1	15.63	17.97	0.000
	집단×검사시점	4.23	1	4.23	4.86	0.041
	오차	15.65	18	0.87		
	총합	75.79	39	26.96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진로인식변화**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매 회기별 부모 설문을 통해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진로인식 변화에 관한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평균을 학생별로 누가 기록한 후, 그래프로 그려보았는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회기 초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3회기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부모가 자신의 생각보다 자녀가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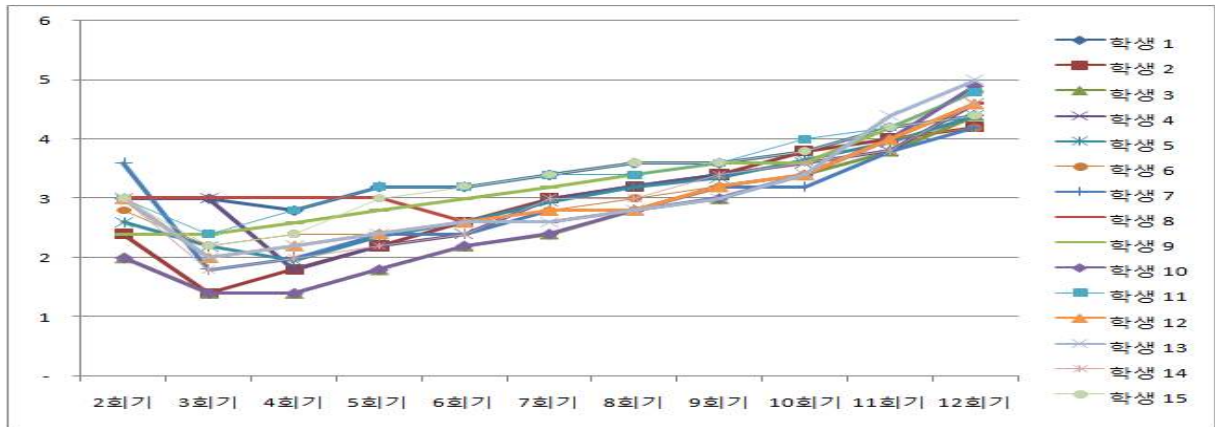


그림 2.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진로인식 변화에 관한 회기별 누가기록표

표 10.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비교

진로성숙 하위척 도	실험집단						$t_1$	$t_2$	$t_3$
	사전(n=15)		사후(n=15)		추후(n=15)				
	M	SD	M	SD	M	SD			
결정성	6.8	1.6	8.4	1.2	8.3	1.1	-6.92	-9.58	0.7
	0	2	0	7	7	3	***	***	
타협성	7.7	1.4	9.3	0.8	9.0	0.6	-6.34	-4.32	2.06
	0	9	0	2	0	6	***	***	
관여성	7.1	1.9	8.9	0.9	8.8	1.1	-5.03	-4.81	.10
	0	7	0	9	5	1	***	***	
독립성	5.4	1.4	6.9	0.8	6.9	1.1	-3.28	-2.98	.00
	0	3	0	8	0	0	**	**	
성향성	6.8	1.4	8.7	0.8	8.6	0.7	-4.52	-5.85	-0.79
	0	8	0	2	8	6	***	***	

$t_1$  : 사전-사후검사 비교,  $t_2$  : 사전-추후검사 비교,  $t_3$  = 사후-추후검사 비교

\* $p<.05$  \*\* $p<.01$  \*\*\* $p<.001$

자녀의 진로인식 점수가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조금씩 상승되었고 마지막 회기에는 거의 모든 부모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자녀들의 진로성숙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

본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의 변화를 시간 추이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그리고 2달 후에 실시된 추후

검사 점수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에서도 두 변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점수에 있어서 추후검사를 실시한 시점까지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기별 내용분석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결과가 갖는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 회기별 상담자가 작성한 관찰내용과 집단원의 경험 보고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소감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회기별 상담일지를 통한 관찰내용 분석 및 요약

12회기 동안의 진로성숙도 향상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와 관련된 집단 상담이라는 사실이 학생과 부모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게 하였으며, 회기가 진행될수록 학생은 자기이해, 부모는 자녀에 대해 구체적인 특징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된 직업들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에 진지한 자세를 보였으며, 의사결정 방식이 처음에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배제한 부모독단이나 학생의 의사가 무조건 수용되는 방임의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합리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잠정적 진로 선택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감을 볼 수 있었다.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변화 경험과 주관적 의미

회기별 경험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평소 학교에서 일회성 진로흥미검사나 적성검사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고민이 많았었는데 다각도로 자신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들을 살펴보게 되니 자신의 꿈이 좀 더 명확해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직업선택 연습을 해보니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평상시 막연하게 직업을 선택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엄마께서 내

성격과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등의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 무조건 욕박지르거나 부모님 의견대로 결정하도록 강요하기 보다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부모와 보다 가까워지고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평소 부모님과 대화부재로 고민을 털어놓기 힘들었는데 같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과 함께 고민해보니 관계가 한결 개선이 되었고, 평소 자신이 몰랐던 부모님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기준을 정하여 직업 선택을 연습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조금은 쉬워졌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과 부모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한 결과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2회기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자신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탐색해 보고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바탕으로 잠정적 진로선택 연습을 합리적으로 해 본 결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도 높아졌다고 답했다. 부모 역시 이번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만족함과 동시에 자녀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을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 효과는 추후검사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 결과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김향숙, 2004; 진혜영, 2006; 최은희, 2007; 최장미, 2008; 허은숙, 2004)이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 경험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적절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학교 시기에 부모의 지지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성숙도 향상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러 연구들(김지윤, 2001; 김진희, 2005; 문정철, 2000; 신선기, 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중 '결정성'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부모와 함께 참여하면서 대화와 접촉의 빈도가 많아지고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진로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주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정성'요인을 향상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향성'의 경우 검사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유는 본 연구자가 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형성이 프로그램 속에 직접적으로 포함하기 보

다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잠재적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연구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따라서 긍정적인 일과 직업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구성한다면 효과의 차이가 보다 분명할 것이라 본다.

셋째, 김향숙(2004)이 제시한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진로인식변화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매 회기 실시하고, 각 점수의 평균을 그래프로 누가기록 한 결과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점수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보기에 자녀들이 기존 자신의 진로에 관한 피상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점차 구체적인 방향으로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프로그램이 자녀들의 진로성숙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회기별 경험 보고서와 평가소감문을 분석해 보면, 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거나, 비관적이었다는 지각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었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지각에서 벗어나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직업과 꿈을 지각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변화하는 체험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평소 자신의 느낌과 충동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던 참여자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직업선택 연습을 해보며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진로선택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험이 됨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관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다양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과 무조건 부모님 의견대로 따르도록 강요되기보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부모와 보다 가까워지고 친해진 느낌이 들었고, 아울러 자신이 몰랐던 부모님의 생각을 알 수 있었으며 부모님과 함께 기준을 정하여 직업을 선택해 보는 과정을 연습해 보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조금은 쉬워졌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프로그램이 참여자들 각 개인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본 연구의 진로성숙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최근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박인우(1995)의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바탕으로 조사, 분석, 설계, 구안 및 적용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구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목표와 구성요소를 선정한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전에 예비적용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진행방법과 시간배정 등에 관하여 중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기 때문에 추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지닌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생입장에서 이 연구는 학생만 참여하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간접적 가정연계를 시도한 프로그램에 비해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관심과 지지를 주는 부모가 실제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생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적성, 흥미 등의 특징과 직업세계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방향을 탐색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진로성숙도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는 앞으로도 수많은 진로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격, 흥미, 적성에 맞게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자녀와 함께 경험함으로써

진학위주의 진로지도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1년 단위로 변경되는 학교 담임교사와 달리 학생에게 지속적 영향을 주는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학교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하는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교육기관인 학교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오늘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토요일휴업일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현실성 및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설계가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진로성숙도의 향상이 부모참여 프로그램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참여로 인해 기인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외에 부모참여 없이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교집단을 추가하여 효과를 보다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Ginzberg, Super 등 진로발달의 '과정'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진로발달과 진로성숙은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것(김봉환 외, 2004)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는 진로성숙도와 같은 변인은 연구기간을 좀 더 길게 계획하여 분기별로 효과를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분기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사결과를 확보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참가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각 학년의 적용연구, 프로그램 적용시기, 남녀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효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순화 (1990).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교육논총*, 26, 29-39.
- 고유나 (2002). 진로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4). *학교진로상담*. 서울 : 학지사.
-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이 (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애착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 (2000). *생활지도 · 상담 · 진로지도*.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충기 (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 동문사.
- 김호연 (1996).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경희 (1991). 진로탐색 집단 상담이 자아개념과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모 (1984). 학교적응과 가정환경에 관한연구. *학생지도연구*, 55, 43-62.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 박아청 (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 정문사.
- 박재식, 이용환 (1993).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로결정과 그 관련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49, 1-34.
- 박효희 (2007).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 진로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해중 (2008).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학업동기 및 희망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화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 및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 변인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olland, J. L. (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안창규, 안현의 공역. *홀랜드 직업선택이론*). 서울 : 한국가이던스.
- 엄영순 (2008).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생생활적응의 영향.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성욱 (2001). 진로상담 집단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승자 (2006).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 김현숙, 이현림 (2006). 직업적 성격유형을 적용한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7(1), 63-83.
- 이방자 (2001).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여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웅 (1995). 진로탐색프로그램의 활용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찬 (2004). *나의 꿈. 나의 미래*. 충청북도 : 교육과학연구원.

- 이지연 외 (1998). 한국인의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교육모형 개발.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동환 (2001).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학습된 무기력을 지닌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호 (2003). 집단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숙 (200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충용 (2001). 온라인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선 (2006).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혜영, 정혜영 (2006). 진로의식 향상을 위한 가정연계 초등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교과교육학연구, 10(2), 497-513.
- 천유선 (2003).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 (2007). 가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숙 (2004). 부모-자녀 동시참여 진로집단 상담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rter, H. E. (1942). The development attitud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4, 185-191.
- Crites, J. O. (1984). *Career development process : a model of vocational guidance and human development*. Boston : Houghton Mifflin.
- Erickson (1963).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Fouad, N. A. (1988). The construct of career mat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49-59.
- Ginzberg, E. (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4), 321-333.
- Herr, E. L., & Cramer, S. H. (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span(5th ed)*. New york ; Harpercollins.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yot, K. B. (1977). *The school counselor and education*.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paper.
- Johnson, N., Johnson, J., & Yates, C. (1979). Effects of the use of the vocational exploration group on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368-370.
- Mann, D. (1986). Dropout prevention-getting serious about programs that work. *Nassp Bulletin*, 70, 66-73.
- R. Watts & J. Carlson (1999). Brief therapy strategies and techniques : an integrative frameworks. *Philadelphia Accelerated Development*, 7, 15-30.
- Strong, E. K. Jr. (1943). *Vocational interests of men and women*. Paloalto.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everinsen, K. (1973). Career guidance.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8, 180-190.
- Wilson, J. & Daniel, R. (1981). The effects of a cheer-option workshop social and vocational stereotype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0(4), 151-163.

## The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with parents on th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Jung-Eun Hwang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implement a program utilizing parents' participation in career group counseling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assess and validate its effect on their career maturity. Main objectives are as follows : Developing an effective way to construct the program for parents and children to participate in career group counseling : Validating its effect of the career matur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 sophomore, junior students attending 'B' middle school in Seoul. For this research, thirty students who wanted to participate the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ling program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 15 students with their par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5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This program is based on Consultation Program Development Model by Park In-u(1995).

In terms of study procedure, we conducted the program to experimental group after class twice a week(60-90 minutes per session) which total to twelve sessions and took no measure to control group. It was administered three times, pre, post and follow test by CMI(Career Maturity Inventory) and were analyzed by 'Mixed ANOVA', 'Paired t-test' from SPSS/Window 12.0. Also the analysis of experience reports by session and counselor observation contents was indica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in the reliability of quantitative data.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tent analyses further revealed that participants in the Program with parents demonstrated positive reactions towards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Overall a positive effect was found in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arents' participating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supporting the hypothesis that the program may be beneficial for improving career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 parents' participating Program, Career Group Counseling, Career Maturity Inventory*